

대전 유성구 산타, 코로나에도 저소득층 소원 선물 전달 이어져 | 2020-12-20 10:09:52



지난해 구청에서 산타발대식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산타 60여 명이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

[대전타임뉴스=홍대인 기자] 대전 유성구(구청장 정용래)는 취약계층에 소원 선물을 전달하는 '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'의 다섯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.

5회째를 맞이한 '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'는 유성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(위원장 류재룡), 유성구행복네트워크(상임대표 손영혜)와 유성구행복누리재단(이사장 김홍혜)이 공동 주관해 한 해 동안 모아진 성금으로 취약계층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부행사다.

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연건 속에서도 후원자들의 기부가 이어져 2,600만원의 후원금이 마련돼 당초 목표였던 35가구보다 22가구가 많은 57가구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있게 됐다.

지난해까지는 직접 산타가 찾아가 선물을 전달했으나 올해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(택배)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했다.

정용래 유성구청장은 "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후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"며, "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"고 말했다.

올해는 대원티앤에이, 다우건설, 케이투발전기, 국민건강보험공단, 아성산업개발, 유성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, 골프존과 온라인 기부자들의 기부로 총 2,600만원의 후원금이 마련됐다.